





Ambassador's Love for Art - 2

# Time is a Gift of Africa

주한 체코대사 H.E. Jaroslav Olša, jr.

지난 5월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에서는 아프리카의 해 50주년을 맞이하여 '짐바브웨 현대미술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는 주 짐바브웨 대사였던 아로슬라브 올샤(H.E. Jaroslav Olša, jr.)

주한 체코 대사와 한스 하인스부룩(H.E. Hans Heinsbroek)

전 주한 네덜란드 대사의 개인 소장품을 선보이는 자리여서 더욱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소품 몇 개밖에 볼 수 없었지만, 아프리카 예술가들의 뛰어난 회화작품과 부조, 체코 예술가들의 회화작품과 진귀한 흑백사진 등의 볼거리가 많았고, 작품 하나하나에 관한 올샤 대사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과 흥미진진한 이야기 덕분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영어는 물론 폴란드어와 러시아어에 능통하여, 폴란드어 통역사로 활동하다가 외무부에 입부한 올샤 대사는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여 서른넷의 젊은 나이에 대사가 되었다. 그러나 '10인의 가장 젊은 대사들'에 들지는 않았다고 하니, 우리나라 외교관들의 부러움을 살 만하다. 그의 조부와 부친은 공산주의 시절을 겪었는데, 인도네시아 연구를 하던 부친은 대중가수로 활동했던 독특한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 아들보다 늦게 외무부에 입부한 그의 부친은 초대 인도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 이상을 짐바브웨에서 지냈던 올샤 대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짐바브웨의 쇼나조각을 수집하고, 아프리카의 역사를 연구하여 관련 저서를 여러 권 집필하였다. 또한 수도 하라레 근처의 예술인 공동체인 텡제넹게(Tengenenge)를 자주 방문하여 현지 예술인들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는데, 그는 "더 있게 되었다더라면 나도 조각가가 되었을 것"이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대사는 이번 전시회 기간 중에도 '짐바브웨 돌조각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하였고, <Modern Art of Zimbabwe>라는 저서도 발간하였다.

편집팀은 쇼나조각을 감상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한남동의 체코대사관저를 방문하였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작품들을 체코에 두고 와서

시아 대사를 지냈다고 한다. 대사는 "아버지(senior)와 아들(junior)의 입장이 입부 순서로는 뒤바뀌었다"며 짓웃게 웃었다.

지금은 육아휴가 중이지만, 무대예술을 전공하고 연극연출자로 활동했던 빼어난 미모의 젊은 부인도 외교관이라고 하니,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집안의 예술가 기질이 외교관으로서의 활동에 훌륭한 자산이 되는 것 같다.

짐바브웨 미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수집하게 되신 계기는?

짐바브웨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쇼나 조각으로 널리 알려진 매우 뛰어난 현대 돌조각 작품들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짐

1. 짐바브웨 미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올샤 대사. 대사 뒤에 보이는 작품은 Lovemore Kambudzi의 <Childhood>의 일부이다. 2. Bernard Matemara <Mother> 2002





1. David Chinyama <Musical Dreams> ca.2004 oil on canvas 2. 텅제넨게 예술인 공동체의 최고령 조각가 Amali Malola (1914년 생)와 20년 연하의 부인이자 조각가인 Kilala 2006. photo © Ondrej Homolka

바브웨를 처음 방문하였을 당시 이러한 멋진 석조물에 깊이 매료되어 버렸고, 2년 뒤 다시 방문하였을 때에는 작품을 구입하고자 심사숙고 하였으나 프라하로 가져올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 주 짐바브웨 체코 대사관 하라레에 부임하게 되어 짐바브웨 돌 조각에 대한 열정을 다시 이어 갈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이 조각품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관객의 입장에 머물렀으나 당시 짐바브웨의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서구의 고정 바이어들이 사라지게 되어 미술가들이 많은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조각 뿐 만 아니라 조각가들에게 까지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슬픔과 고민도 함께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점점 짐바브웨의 미술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고 짐바브웨에서 보낸 6년간 석조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그 작가들과 가깝게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생겼다. 그들의 전시회 오프닝에도 가고 텅제넨게 예술인 공동체, 차풍구 조각공원, 하라레와 그 주변의 작은 스튜디오들과 그들의 집도 방문하며 작가들과 많은 대화도 나눌 수 있었으며 짐바브웨의 현대 미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계기로 짐바브웨 현대 미술 컬렉션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사관 정원에서 재능 있는 작가들의 전시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더 나아가 체코에서도 네 차레나 짐바브웨 현대 미술전을 열게 되었다. 그 중 가장 큰 전시는 2007년 체코 내셔널 갤러리에서 개최한 전시이며 체코에 생소하였던 짐바브웨의 현대 미술을 알릴 수 있었다.

짐바브웨 현대미술의 특징과 세계 미술시장의 반응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현대미술이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그 중에서 짐바브웨가 거의 유일하게 국내외에서 모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미술가들은 대체적으로 자국에서 보다는 해외 미술 시장에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짐바브웨의 경우, Bernard Matemera와 Henry Munyaradzi 그리고 젊은 작가인 Dominic Benhura 처럼 미술가들은 짐바브웨 내에서나 해외에서 모두 똑같은 명성을 얻고 있다. 짐바브웨 현대미술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짐바브웨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을 보여주듯이 그들의 높은 교육열에 있다. 또한 반세기 이상의 전통을 지닌 돌조각은 최고의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조각가들은 좋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짐바브웨에는 예술가 수준의 조각가에서 기념품을 조각하는 상업 작가에 이르기 까지 수 만 명의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폭넓은 아티스트층의 형성이 짐바브웨를 블랙 아프리카의 현대미술의 실세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대사님의 컬렉션을 소개해주신다면?

짐바브웨를 대표하는 조각가를 꼽는다면 Bernard Matemera와 Dominic Benhura를 꼽을 수 있으며 화가로는 Lovemore Kambudzi를 꼽을 수 있다. Kambudzi는 매우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나 하라레 근교의 일상생활을 매우 큰 캔버스에 그려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이다. 나의 컬렉션도





3. 관저의 벽을 장식하고 있는 재미난 작품들

이러한 세 명의 작가의 작품 외에도 100명이 넘는 짐바브웨의 현대미술의 역사를 대표하는 조각가와 화가의 작품을 수집하였다. 이번 5월 한국국제 교류재단의 <짐바브웨 현대미술전>에서도 내가 만난 이 훌륭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체코의 현대미술 역시 한국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설명해주시다면?

체코의 현대미술은 아직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체코 현대미술가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작가는 Alfons Mucha로 파리아르누보(Art Nouveau)의 대표적인 작가이며 체코 최초의 지폐와 우표(1918-1920)를 제작하였으며 삽화가로도 유명하다. 체코처럼 작은 나라들의 다른 예술가들이 그러하듯이 유명한 체코의 예술가들도 프랑스, 영국, 미국등에서 활동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추상화가 Jiri Kupka, 건축가 Jan Kaplicky, Eva Jiricna, 사진작가 Jiri Koudelka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체코 미술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프라하 내셔널 갤러리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곳에서 체코 현대미술의 대표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프라하와 다른 도시들의 크고 작은 화랑에서도 체코미술의 '잇혀진' 측면을 만날 수도 있고 가장 최신의 경향들도 만나 볼 수 있다.

한국미술 전반에 대한 대사님의 인상은?

한국의 현대미술계를 탐구할 만큼 아직 한국에서의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서울에 부임한 직후인 2008년 백남준 아트센터의 개관식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 백남준의 위대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작년에는 덕수궁 미술관에서 <한국근대미술결작전>을 매우 재미있게 보았으며 올 봄에는 박수근 회고전도 의미있었다. 그러나 도처에서 열리고 있는 크고 작은 전시회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면도 없지 않았다. 만약 한국미술품을 구매한다면 어떻게 선택하고 어디서 무엇을 구매해야하는지? 솔직히 짐바브웨의 미술품 구입이 나에게겐 훨씬 쉽고 수월한 작업이었다. 아주 최근에 열린 덕수궁 미술관의 <달은 가장 오래된 시계다>는 올해 말 프라하에서도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프라하에도 빠른 시일 내에 한국문화원이 개관하기를 기대하며 서울에도 체코 문화원이 문을 열어 두 나라 간의 문화교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글 이상미 (외교등 편집위원)